매일 행하는 마음속 성전낙성식

(시편 30:1~12)

1.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2.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매 나를 고치셨나이다
3.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4.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5.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오늘 말씀 중심으로 <매일 행하는 마음속 성전 낙성식>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매일 행하는 마음속 성전 낙성식'
매일 매일 내 마음속에서 성전 낙성식을 거행한다는 의미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지난여름에 특별히 강릉에 많은 분들이 내방해 주셨습니다. 패턴은 똑같이 점심 식사를 함께 하고 찻집에 가서 대화를 나누고 다섯 시 정도 되면 돌아가십니다. 그러고 나면 대화의 힘에 대해서 각별하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찾아오시는 분들의 생활 속의 시시콜콜한 문제들을 놓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설령 생활에 관한 문제가 언급되더라도 대화의 기본 주제와 테두리는 십자가 생활화입니다. 십자가 복음을 어떻게 생활화하고 있느냐가 문제인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십자가 생활화로 펄펄 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야말로 복지를 살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과 대화를 하게 되면 제 마음도 날아오릅니다. 제 마음속에서 기쁨이 배가 되고 또한 제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분의 기쁨도 커지는 놀라운 화학작용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반면에 십자가 생활화를 한다고 애는 쓰고 계시지만 삶의 특정한 부분에서 충돌을 겪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부분은 대부분 십자가 복음을 듣기 오래 전부터 이어져온 문제들입니다. 자신과 그 문제를 구분해 내기가 어려울 정도로 인격의 한 부분을 형성하게 된 문제들에 대해서는 십자가로 뚫고 들어가지를 못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럴 때에는 제가 대화의 주도권을 쥐고 이야기를 풀어가게 됩니다.

물론 제가 그분의 입장이었다면 저는 더 심하게 십자가로부터 거리가 먼 삶을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제3자의 입장에서 마치 의사가 메스를 들고 타인의 몸을 수술하여 고쳐내듯이 십자가의 관점에서 대화를 나눠야 합니다. 그러다보면 참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단지 설교를 하고 듣는 것과는 다르게 면대면 해서 십자가를 중심에 놓고 대화하다 보면 일어나는 변화에 대해서 거듭 놀랍니다.
제가 상담을 해드리고 설득하는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그분의 마음이 십자가를 사이에 두고 세상 쪽에 붙들려 있는 상태로부터 십자가 너머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 쪽으로 가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현재 그분의 마음을 차지한 세상의 대상보다도 하나님께서 더욱 뚜렷한 현실로 보이게 하는 것이 대화의 목적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오 나의 태양'이 되시게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사랑하기 때문이든지 원수처럼 여기기 때문이든지 마음에서 '오 나의 태양'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고 좋아해서 애인밖에는 보이지 않을 때처럼, 마음에서 분하고 억울해서 원수밖에는 보이지 않을 때에 원수가 태양이 됩니다. 그러나 원수이든 사랑하는 존재이든 치워버리고 하나님만을 '오 나의 태양'이라고 말할 수 있는 상태로 끌어올리기 위한 대화가 지속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선적으로 명확한 존재가 되시면, 지금 주어진 문제나 상황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완벽한 은총적 상황이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이 참으로 이상한 일입니다.
흔히 병 고치는 것을 기적이라고 하지만 이러한 마음의 변화야 말로 삶의 세계 자체를 바꾸는 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로 가득한 가운데 우울해서 왔던 마음이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지를 모를 정도로 여기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병이나 가족 간의 문제 혹은 사업 문제로 오신 분이 있어서 대화를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사업 문제가 있는 상황은 그대로인데도 도대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알 수 없게 될 정도로 완벽한 은총적 상황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몸에 병이 있어도 그것이 완벽한 은총적 상황임을 깨닫고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 우렛소리가 되실 때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지금 현재 상황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우렛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사업이 안 되어서 걱정하시는 분의 마음을 살펴보면 단순히 사업 때문에 불안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소리가 우렛소리로 들려오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사업이 안 되면 망할 수밖에 없고, 사업이 망하면 돈이 없고, 돈이 없으면 자녀들의 인생도 망가질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내 생각이 아닙니다. 우리는 스스로 생각한다고 여길 때조차도 세상에서 들은 소리를 반복하는 것뿐입니다.
젊어서 병들어 죽는 것을 당연하게 저주 받은 생애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세상의 소리가 우렛소리로 들려진 것뿐이지 정말로 저주 받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결국 사람은 병 걸려

서 죽기 마련입니다. 오장육부의 기능이 약해지고 심장마비조차 결국 병입니다. 죽어서 심장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심장이 멈추니까 죽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사고로 갑자기 죽는 경우가 아니라면 병으로 죽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50살에 병 걸려 죽는 것을 저주로 여깁니다. 이것은 세상의 소리가 우렛소리로 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태양이 되시고 가장 우선적으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시게 되면, 지금의 상황이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주어졌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왜 이러한 일이 주어졌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을 우렛소리로 듣게 됩니다. 그럴 때에 지옥조차 천국으로 바뀌게 됩니다. 삶이 복지가 되고 에덴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무엇이 문제였는지를 찾을 수가 없을 정도로 지금의 상태가 은총적으로 주어진 완벽한 상태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제목에 “다윗의 시, 곧 성전 낙성가”라는 표제어가 붙었습니다.
낙성가는 낙성식 때에 부르는 노래입니다. 낙성식은 성전을 건축하는 공정이 끝나고 완성됨을 축하하는 의식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낙성식을 위한 노래이기 때문에 이 시를 이해하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내용을 읽어보면 성전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표현이 한 마디도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시는 특정한 역사적 사건을 배경으로 한 것이 아니고, 선민들이 삶의 현장에서 일상적으로 반복하여 겪는 영적기복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영적기복’이란 삶과의 연관성 안에서 하나님과 세상과의 삼각관계를 뜻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과의 연관성 안에서 하나님과 관계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 시를 해석함에 있어서 ‘다윗이 일상에서 일어난 영적기복을 노래한 것으로서, 후대 사람들이 성전을 재건하게 되었을 때에 채택한 노래’라고 합니다. 바벨론의 공격으로 솔로몬 성전이 파괴되었고, 에스라 6장에 보면 주전 516년에 성전을 재건하여 봉헌식을 하게 되는데 이때에 이 노래를 채택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혹은 고대 그리스 왕이었던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가 유대를 점령해서 성전을 훼손하고 모독한 것을 마카비가 반란을 일으켜서 회복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성전을 중수하여 봉헌하면서 불렀던 노래로 여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러한 해석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많은 시편 중에서 성막이나 성전의 언급이 전혀 없는 이 시를 선택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성전을 짓지 않았기 때문에 성전 낙성가라는 제목이 다윗에 의하여 붙여진 것이 아니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노래에 성전 낙성가의 표제어를 붙였습니다. 성전을 직접 짓지는 않았지만 다윗은 성전건축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성전건축에 필요한 많은 자재를 미리 모아두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다윗이라면 충분히 성전 낙성식을 바라보면서 노래할 수 있었습니다. 후대 사람들이 임의로 이 시를 선택하여 낙성식 때에 사용했다는 것이야 말로 이해하기 힘든 해석일 것입

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성전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고 성전을 건축하지도 않았으면서 이 시를 어떤 이유에서 성전 낙성가의 표제어를 붙였던 것일까요? 표제어를 잘 살펴보면 이 시의 본뜻이 다 드러납니다. 다윗 시절에는 성전이 없었습니다. 후대에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시작하여 성전이 완공되었습니다. 낙성식이란 결국 없었던 것이 생긴 것을 축하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을 개인에게 적용해본다면 어떻겠습니까?

개인적 접근이 중요한 이유는 구약시대의 건물로서 존재한 성전은 곧 선민 개개인의 마음과 연관된 의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선민이 성전과 멀리 떨어진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지만 마음속에서는 성전을 기억하게 하는 요소로서 필요했던 것이 건물로서의 성전이었던 것입니다. 선민들이 삶의 현장에서 장사도 하고 살림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럴 때에 마음에서 성전을 기억하지 않는다면 건물로서 존재하는 성전의 의미는 사라집니다. 삶의 현장에서 각자가 마음의 성전을 기억하는 것이야 말로 성전 존재의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삶에 바빠서 마음에서 성전이 사라져 버린 자들에게 다윗은 오늘 본문을 통해 마음속에서 성전 낙성식을 할 것을 요구합니다. 없었던 성전이 있게 된 것을 축하하는 것이 낙성식이듯이, 이 노래를 통해서 내 마음에서 없어졌던 성전을 기억해내어 개인적인 성전 낙성식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오늘 본문에는 성전에 대한 이야기는 한 마디도 나오지 않지만, 대신 '성전 낙성가'라는 표제어를 붙임으로서 의도를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1~5절, 6~12절의 두 부분으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성전 낙성가라는 표제어를 염두에 두고 읽을 때에 의미가 뚜렷해집니다.

1~3절을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매 나를 고치셨나이다 /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라고 합니다.

이 구절이 설령 마음에서 사라졌던 성전을 기억해내는 성전 낙성식을 의미하는 것일지라도 어떤 연관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일까요? 그러나 표제어를 염두에 두고 읽다보면 특정한 패턴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5절까지는 어려움에 처한 상태에서 평강과 광명의 상태로 빠져나오는 과정을 노래합니다. 6~12절까지는 반대로 안정적 상태로부터 어려움에 처하지만 다시 그 어려움에서 빠져나오는 과정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어둠에서 광명으로, 슬픔에서 기쁨으로, 두려움과 평강의 모습이 대비되어 나타납니다. 다윗은 마음속에서 성전을 기억함으로 광명과 기쁨과 평강의 삶이 주어질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성전이 사라진다면 어둠과 슬픔과 두려움이 우

리의 삶을 사로잡을 것이라고 합니다. 성전을 기억하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두 세계를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만나는 분들과 대화를 할 때에도 그 마음속에 성전을 기억시켜드리고자 노력하는데, 그 성전의 의미가 온전하게 성취된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대화하는 가운데 십자가 사건이 온전히 적용되도록 하다보면, 어느덧 성전이 바르게 기억될 때에 하나님이 태양이 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우렛소리가 되어서 이 세상이 들려주는 모든 소리를 압도하게 됩니다. 이렇게 마음에서 성전의 낙성식이 일어나면 주어진 현실은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뀝니다. 에덴 밖으로부터 에덴 안으로 바뀌고 애굽에서 복지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성전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 문제가 다급해지면 문제에 쫓기고 삶의 무게에 짓눌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까지 살펴본 바에 의하면 다윗은 입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항상 마음이 성전으로 가서 성전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사업의 문제, 배우자의 문제, 자녀의 문제 등에 마음이 묶이면 그 상태를 그대로 유지한 채 하나님께 나와서 살려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묶인 마음의 상태를 우선 성전으로 보냅니다. 성막의 성소와 지성소의 구조를 통해 마음을 진단하는 것입니다.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상징하는 법궤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의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돈, 건강, 사업 등의 별의별 이름이 들어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번제단에서 상번제가 드려질 때에 어린양이 죽듯이 내 마음이 죽어야 함을 깨닫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죽이고서야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것입니다.
‘이제는 나의 마음이 이 세상 어떤 것도 붙들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만을 붙들고 있사오니 내게 나타나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태양이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최우선적인 현실이 되셔서 이 세상 어떤 존재보다도 더 살아계신 분으로 마음에서 느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내 마음에서 ‘오 나의 태양’이 되시면 나의 현재 상태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에 의해서 주어진 것임을 알게 됩니다. 또한 앞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이끌려져 갈 것임을 믿게 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렛소리로 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는 ‘예수님과 함께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라는 음성이 우렛소리로 들려올 것입니다. 그 소리가 들리면 삶의 형편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이제까지 일을 하셨고, 우리의 상태를 고려할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나야만 했던 이유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어느 것 하나 빈틈없이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주어진 것임을 깨닫게 하시는 음성이 우렛소리로 들려올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성전에 대한 직접적인 표현은 하나도 나오지 않는 이 일상적인 영성기복을 반영하고 있는 노래를 성전 낙성가의 표제를 붙여 노래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을 노래하는 선민들이 날마다 마음의 성전을 기억하면서 성전 낙성식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면 어둠은 광명으로 바뀔 것이고, 두려움은 평강으로 바뀔 것이고, 슬픔은 기쁨으로 바뀔 것입니다. 반면 6절부터의 내용대로 아무리 생활이 안정적일지라도 마음에 성전이 없는 채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면 흑암과 두려움 속으로 빨려 들어갈 것이고 슬픔 속에 잠기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설령 그런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마음에서 성전 낙성식을 거행함으로서 돌이킬 수 있음을 노래합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마음을 성전으로 보내어 성전의 구조를 따라 마음을 진단해야 할 것이며, 세상에 사로잡힌 마음을 번제단에서 죽은 것으로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태양이 되실 것이고, 마음의 귀가 열리면서 세상 가치를 주장하는 수많은 말들을 압도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렛소리로 듣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다윗은 날마다 성전 낙성식을 할 것을 요구했고, 이는 곧 우리에게는 십자가생활화를 뜻합니다. 십자가에서 성전의 의미가 완전히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일성수는 중요합니다. 예배당에 가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내 마음에서 성전과 십자가를 기억함이 없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목적 또한 우리의 마음에서 성전 낙성식을 위함이고 성전의 의미를 완성하신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아무쪼록 매일 성전 낙성식을 하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오! 나의 태양이시여, 오! 나의 우렛소리이시여' 라는 고백이 모든 삶의 순간에서 끊임없이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십자가생활화로 날마다 성전 낙성식을 하게 하심으로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만이 우선적으로 보이는 태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을 가득 메운 어떤 소리보다도 하나님의 음성이 우렛소리가 되어서 에덴과 복지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